

Kagro.org



KAGRO

INTERNATIONAL JOURNAL

July / August 2014
Volume 58, Number 4





***COLD
AND
REFRESHING!***

REACH FOR THE FIRST BOTTLE THAT TELLS YOU
WHEN YOUR BEER IS COLD—THE COORS LIGHT® COLD ACTIVATED BOTTLE.
IT'S WHAT COLD BEER LOOKS LIKE.

21
MEANS 21®



THE WORLD'S MOST REFRESHING BEER™ 

Miller

NEW
BOTTLE
FRIDGE
PACK

PACK ON

THE PROFITS



Great Taste...
Less Filling.

USE SIDE
CARRY
HANDLE

Miller
Lite
TRUE PILSNER
BEER

12-12 FL. OZ. BOTTLES

Only 3.2g carbs and
95 calories. Choicest Hops
for Premium Taste.

12-12 FL. OZ. BOTTLES

목 차

Officers

President

Seong Chil Heo
New York

Vice-President

Young Pil Kim
Canada

Vice-President

Yo Seop Lee
Washington D.C

Vice-President

Jong Heo
Southern California

Vice-President

Hui Jun Kim
Central California

Vice-President

Gi seon Choi
Washington

Vice-President

Baek Gyu Kim
Georgia

Vice-President

Won Jae Lee
Colorado

Auditors

Seung soo Lee
Gwang Ik Lim

6. 회장 인사말

8. 이사장 인사말

9. 경제 뉴스

13. KAGRO 소식

17. 각 지역 협회소식

29. KAGRO 소식

32. Business News

36. 건강뉴스

38. 회장단 및 스폰서 소개

Board of Directors

Chairman

Jin Sup Hong
Washington D.C

Vice Chairman

Calvin Choi
Arizona

Vice Chairman

Byeong Mok Gang
New York

Vice Chairman

Gwang Seo Lee
Maryland

Vice Chairman

kwang Yeol Na
Harrisburg, PA

Vice Chairman

Se Ki Kim
Chicago

Advisors

Ki Ok Kim
Yang Il Kim
Ki Pung Jeon
David H Kim
Andrew Ku
Ju Han Kim
David kim
Yong Wong Han



July / August 2014

CONTENTS

Board Members

KAGRO International

Arizona
LA California
Central California
Northern California
Chicago
Colorado
Dallas
Delaware
Georgia
Harrisburg
Hawai
Maryland
New York
Oregon
Philadelphia
Tennessee
Virginia
Washington D.C
Washington
Calgary, Canada
Edmonton, Canada
Manitoba, Canada
Ontario, Canada
Quebec, Canada
Vancouver, Canada
U.K.B.A Canada

- 6. President's Message
- 8. Chairmans Message
- 9. Industry News
- 13. KAGRO NEWS
- 17. Chapter News
- 29. KAGRO News
- 32. Business News
- 36. Health News
- 38. Board Members & Sponsors

Editorial Staff

Publisher

Seong chil Heo

Editor

Justin Lee

Journal Advisor

Justin Lee

International KAGRO
is a member of the
FMI Association
Council and a
member of the NGA
Association Council.

회장 인사말

Greeting of President



허 성 칠 회장

북미주 20만 식품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은 예년에 없던 가뭄과 폭염이 곳곳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해서인지 우리의 마음도 폭염에 메마른 사막처럼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가뭄 끝에 단비가 오고 그 단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시며 만물이 소생한다는 것을. 지금 메마른 사막처럼 타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은 흠뻑려지는 단비를 맞아 소생하는 초록으로 비옥한 땅이 되듯 머지 않아 여유와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가 앞만 바라보면서 달려 오는 동안 올 해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총연 역사에 한 획을 그은 50차 총회를 마치고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으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의 사명과 역할에 더 충실하게 됐습니다.

순간순간 더 가까워지는 거리감, 낮아지는 국경, 좁아지는 공간 감각으로 인해 우리는 국제 사회 속의 총연이 해야 할 일들을 더욱 깊고 자세하게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총연을 이끌며 공을 들였던 한국 중소기업 발굴과 미국 시장 개척, 한국 지자체 특산품 미주 진출 및 국제화 사업, 29개 챕터의 결속력 강화를 통한 전체 동포 경제 향상, 펩시콜라와 코카콜라, 맥주 회사 등 대형 제조업체를 총연의 실질적 파트너로 단단히 묶어둔 것 등은 앞으로 동포 경제가 기나긴 침체의 동면에서 깨어나 새로운 세계를 향해 전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10년이 넘도록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어둠을 헤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노력에 기인한 좋은 결과를 여러 번 거두었습니다. 그 기나 긴 불경기도 이제 밝아 오는 호경기에 자리를 넘기고 있습니다.

아직 실물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호경기가 불경기의 마지막 방어선을 뚫어 선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더 강하게 총연을 중심으로, 지역 챕터를 중심으로 우리 식품인들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달디 단 열매를 가장 먼저 맛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허 성 칠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장

Dear KAGRO International members, partners and family:

So far this summer we experienced highs and lows with the weather: a combination of either drought or heavy rains. I'm sure we can also agree that these affects were similar to how we've been feeling with our businesses. Never less, the KAGRO team shoulders on with our strong focus, passion and beliefs when life gives us obstacles.

We can view the weather in a different light and say that rain was a welcome to the dry spell. It revives and makes for fertility. Members, we have come this far and we already hit the halfway mark. Not only are we in the 3rd quarter of the year, but we just surpassed the 50th chapter meeting since KAGRO's fruition. We're at a pivotal moment. The economy is climbing out of the recession. We've stayed strong and endured much in the past few years. I feel we are starting to see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Part of KAGRO's new vision is continuing to work with and expand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se past three years KAGRO has been diligently working with the SMBA (Small & Medium Business Association of Korea) to establish and trade Korean products through both our own Korean communities and the rest of the businesses in North America. By continuing these efforts we are proudly helping our home country and our adopted countries awaken from economic hibernation.

These past ten years we've experienced success and failures. However, our work ethics and beliefs have not wavered! In this turning point all we can do is move up through the continued strong bond of the 29 chapters, our partners, and supporters.

Thank you.

PRESIDENT OF KAGRO INTERNATIONAL ASSOCIATION
SEONG CHEL HEO

이사장 인사말

Greeting of Chairmans



홍진섭 이사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짬뽕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업 일선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올 여름에는 날씨와 관련된 뉴스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130년 만에 온 최악의 가뭄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일상이 불편한 것은 물론 각종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갈비 1인분에 50달러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놀래켰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기본 생필품 물가가 치솟기 때문이고 더 이상 가격 인상을 억누를 수 없었던 업주의 고민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한 동안 마음이 몹시 아팠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실물 경제가 처한 입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불경기가 장기화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나긴 불경기가 막을 내리고 곧 좋은 시절이 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경기 회복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경기 흐름을 분석한 결과 이제는 호경기가 시작된다는 경기 주기설에 의거한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힘을 얻어 본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는 동포 경제의 회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꼬리를 완전히 감추지 않은 불경기가 곧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돼 우리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 회원들을 비롯한 모든 동포들에게 매일 좋은 일만 생기기를 간구합니다.

남은 여름 한 달 동안 작렬하는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회원 여러분 가정과 사업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진섭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 이사장

Industry News



작은기업이 대기업을 이기는 마케팅 방법은 무엇일까?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마케팅 전략이 아닌 대기업 따라하는 마케팅을 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사장님이 알고 있는 마케팅 지식은 마케팅 전문서적에서 비롯된것이 많습니다. 그러한 마케팅 서적은 중소기업에 맞는 내용이 아닌 대기업에 초점에 맞춰진 마케팅 전략이기에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겁니다.

대기업은 마케팅 방식자체가 다릅니다. 대기업은 제품광고 보다 브랜드 광고에 비중을 둡니다.

우리나라의 대표기업 삼성도 첼시라는 축구팀에게 후환하며 삼성 브랜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간 186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면서 이지요. 왜일까요? 대기업은 브랜드가 확고 해지지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쉽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브랜드 자체가 신뢰도 이기때문에 다음부터 제품이 무엇무엇이 나왔다고 알리기만 하면 고객이 쉽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삼성에서 나오는 제품은 필요성이 있다면 신뢰도에 의심없이 사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어떨까요?

중소기업은 그러한 브랜드가 없습니다. 고객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사기전 생각하는것이 신뢰도 라는면을 의심하게 되는것입니다. '제품은 사고 싶은데 믿을 만한것인가?' '이러다 사기당하는것은 아니야?' '거짓말 같은데....' 라면서 고객은 필요성을 느끼나 신뢰도가 문제되어 구매하기를 망설이게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다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요. 대기업은 브랜드 광고를 확고히 하고 제품이 나오면 각종 언론매체에서 나왔다는걸 알리는 목

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펼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러한 방법을 쫓아 하다가 비용만 쓰고 효과도 미비 합니



다. 대기업과 똑같은 프로세스로 마케팅을 하면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다른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이 필요한겁니다. 중소기업일수록 디테일한 마케팅전략을 펼쳐야합니다. 자신의 제품 및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찾아내서 고객에게 어필하여 가치를 이해시켜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단지 알리는게 아니라 바로 고객에게 가치를 이해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고객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라는걸 이해시켜야합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달리 브랜드가 부족하기에 신뢰요소를 꼭 넣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단지만 만들더라도 대기업과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전단지나 홈페이지중 마케팅 요소가 잘 포함된것을 보게 되면은 글과 사진이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고객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이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구랑 사진을 보게되면 고객이 믿게 되고 끌리게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객관계관리 마케팅 컨설팅을 했던 이가홍삼의 홈페이지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온가족이 같이 만드는 홍삼으로 어필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가치를 이



해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홈페이지는 상품을 보여주기 바쁜데 이가홍삼의 경우는 메인화면에 상품이 보이지 않습니다.

메인화면에서 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이 해시키는 과정으로 꾸민것입니다. 이처럼 중소기업 마케팅 전략은 달라야합니다. 그래야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번기회를 통해 자신의 마케팅을 진단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기위해 필요한것은?

지금까지 만나보았던 강소기업은 자신만의 비밀스런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속에서 이겨내는 그 무언가를 갖고 있었지요.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쉽없이 달려며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그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멋지게 이겨내고 결국 강소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기로서 기회를 만들었고 해결해나가며 노하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얻어진 소중한 노하우는 자신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하였지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노하우가 쉽게 공유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공유가 되지 않는걸까요?

예를 들어 어느 능력있는 세무사는 업체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선에서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지요. 하지만 이 방법은 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기에 책이나 강의에서 알려서는 안됩니다. 잘못 하면 오히려 세금조사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지인들 사이에서만 진정한 노하우(?)가 전해지고 있는겁니다. 또한, 어느 쇼핑몰업체는 상품등록부터 포장, 배송까지 하는데 있어서 적은인력으로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하우는 자신만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기에 경쟁업체에 알려지기를 꺼려하여 공유하지 않는겁니다. 이처럼 진정한 노하우는 공개적으로 알려져서는 안되거나 자신만의 노하우라 여기기에 공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공한이는 말합니다. '나는 성공하는데 수많은 수업비를 지불했다. 부도도 내고 좌절을 겪고 자살까지 생각이라는 생각까지 했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험들이 나를 더 불타오르고 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도 좌절도 경험하고 밑바닥도 경험해봐야지 인생의 쓴맛 단맛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처럼 다른 이들에게 수많은 벽에 부딪히며 상처입고 열정으로 이겨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벽과 함정을 파악하여 최대한 피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해!' 가 아니라 '내가 고생했지만 너는 덜 고생하는 길을 알려줄게'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GPS기술을 오픈하여 우리가 수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 공개가 되지 않고 자시만 가지고 있었다면 발전이 없었을 겁니다. 또한, 구글의 안드로이드OS도 공개를 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였으니 삶을 이롭게 하는 수많은 어플들을 만들어질 수 있던 겁니다.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있어서 수많은 미션들이 존재합니다. 동업, 자금조달, 투자유치, 저작권, 특허, 임대계약, 제품개발, 마케팅, 직원관리 등 미션들을 성공적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잘 모르기에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맥락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요. 어떤 곳은 성공가도를 달리던 건강음료 업체였다가 식파라치의 신고로 인해 한순간 폐업을 겪기도 하고, 직원관리를 소홀히 하여 내부고발자가 되거나 몰래 돈을 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그에 맞는 사업 노하우를 배웠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을 겁니다. 마이더스마케팅연구소/유성목



timeless TIME CIGARETTE



MADE IN KOREA

SURGEON GENERAL'S WARNING: Quitting Smoking Now Greatly Reduces Serious Risks to Your Health.

Global Trading Inc. KT&G USA
Address : 2605 North Van Buren, Enid, OK 73703 USA
Toll Free(Order) : 1-877-580-5506 / Fax : 1-580-237-0610

대기업과 스몰 비즈니스 관계 “소통이 우선”

총연, 펩시콜라와 컨퍼런스 토크 통해 지역별 관심사 전달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는 지난 9일 펩시콜라와 대표자 회의를 갖고 일선 사업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지역 챕터와 굴지의 생산업체를 연결해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고 공동 사업을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총연은 이번 대표자 회의를 통해 각 지역별 사업을 설명하고 펩시 콜라의 참여를 약속 받는 성과를 올려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활짝 열었다.

허성칠 국제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장은 “생산업체와 일선 사업장이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 플랜을 마련하는 훌륭한 관행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펩시 콜라를 시작으로 맥주 회사와 육가공 업체 등 분야별 제조업체를 차례로 연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표자 회의는 동부의 버지니아와 뉴욕 필라델피아 메리랜드 중앙 펜실베니아 등이 참가하고 서부에서는 애리조나와 로스앤젤레스 등 전국적으로 11개 챕터가 참가하는 대규모 회의였다. 펩시콜라에서는 본사 대외협력 담당관인 알렉스 씨와 한인 케빈 유씨가 참가해 전국을 동시에 연결하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 지역별 현황을 청취하고 각 챕터가 계획중인 사업, 펩시가 참가하는 사업과 행사 등 다양한 주제로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각 챕터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지역 챕터와 지역 펩시 본사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이었다.

버지니아 챕터와 필라델피아 챕터 모두 펩시 지역 본사에 전화와 서신 등으로 연락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특히 골프 대회 등 행사를 기획하면서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려고 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실정을 토로했다. 로스앤젤레스 역시 지역 챕터와 일선상인, 펩시와의 공동 미팅을 요구하면서 지역 펩시 본사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미팅 셋업 협조를 요청했다.

아리조나의 경우 화씨 110도를 넘는 더위에 코스트코 등 대형 업체들은 펩시 제품을 싸게 팔아 스몰 비즈니스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스몰 비즈니스들이 캐그로를 중심으로 뭉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격에 펩시를 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시 당국의 조닝 변경으로 일부 회원들이 존폐 기로에 놓인 매리랜드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한 미팅 셋업을 희망했다. 펩시 콜라의 알렉스와 케빈 유는 각 지역별 현황을 청취하고 자유 토론을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한 실행 여부를 각 챕터에 이메일 등을 통해 알리고 컨퍼런스 콜을 통한 대표자 회의를 보다 자주 마련하겠다고 했다. 허성칠 국제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장은 “각 챕터 대표들이 쏟아낸 현장의 목소리가 펩시사에 생생하게 전달됐다”며 이번 컨퍼런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사업을 펼쳐가자고 격려했다.

제13차 THE 13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세계한상대회

2014. 9. 24(Wed) ~ 26(Fri) | 부산 BEXCO 제2전시장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의 장!

제13차 세계한상대회가 9월 24일부터 3일간 부산광역시에서 열립니다.
전세계 한인 비즈니스맨을 위한 정보와 교류의 장인
세계한상대회에 지금 참여하세요!

함께가는한상 네트워크!

새시대 경제 도약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온라인 사전 등록은 한상넷(hansang.net)에서 8월 10일까지

등록문의 세계한상대회 본부사무국 **전화** +82-2-3415-0158 **e-mail** registration@okf.or.kr



새시대 경제도약의 동반자,
한상네트워크!

Global New Market, **Hansang Network!**

- 주최** 재외동포 경제단체
- 주관** 재외동포재단, 부산광역시, 매일경제신문 • MBN
- 후원**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2014 CA KAGRO Trade Show

지구촌 여기저기 고르지못한 날씨와 무덥고, 지속되는 불경기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경쟁속에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흩어져 있던 CA KAGRO가 하나로 통합을 하였고, 서로가 협력하에 좋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달6월 17일에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행사에 협조해 주신 여러 협력업체 및 각 챕터회장단과 회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장 김 중 칠

CA KAGRO협회에서는 불경기와 점점 많아지는 경쟁속에서 어떻게하면 회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있을까 생각중에 CA KAGRO 협회에서 Trade Show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두번을 성황리에 잘 하셨다는 전직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번 회원님들을 위해서 Trade Show를 해 보는것이 좋을 것 같다는 여러분들의 의견하에 이번 10월21일에 3번째 Trade Show를 LA 컨벤션센터에서 3만 SQ.FT. 를 빌려서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번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다양한 업체와 한국식품업체들도 참석하기로 하였으며 따라서 타민족들도 참석을 할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CA KAGRO 회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합니다. 우리가 한데 뭉쳐서 큰 목소리냄으로써 더 큰buying power도 생길 것이며 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을 협회에서 할때에 회원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바쁘실 줄알지만 시간을 내서어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다같이 힘을 내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뜻안에서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가주한미식품주류상협회

회장 김중칠 배상



CALIFORNIA KAGRO ASSOCIATION



2014 **KAGRO** CA **TRADE SHOW** at LA convention center

By California KAGRO Association 



Tuesday October 21, 2014 | 10am to 4pm

CA KAGRO INVITES YOU TO OUR GROCER & LIQUOR INDUSTRY TRADE SHOW

Come and meet vendors, network with KAGRO members from all over Southern California as well as non-member retailers and specialty stores.

- **Admission Free for Members**
- **\$20 for NoMembers** (includes 20 opportunity drawing tickers)
It's FREE entrance fee, if you register before SEP 15th
- **Meet KAGRO Members**

100 Vendors | Show Specials | Drawings Every Hour | Big Prize Drawing at 4pm

catradeshow.com





2014 Hottest Items from Korea

www.vilac.co.kr

Conveniently enjoy a meal!
Ready in just 3 minutes!

Vilac Cup Rice

4 Flavors (Fried Kimchi / Seafood / Chicken Curry / Black Bean Sauce)

Sunghyun Seo | seosh@vilac.co.kr
82-51-630-7363

www.daesangfnf.com

Daesang FNF Kimchi

Eunkyung Woo | ekwoo@daesang.com
82-2-3290-8841

www.mhrg.kr

**Manuka and Ginseng
Manuka Honey & Red Ginseng Stick**

Angela Lee | angela@mhrg.kr
82-2-577-3389

www.chois1.com

Choi's 1 Seaweed Snack

A true "Super Food" from the Sea!
5 Flavors (Original / Natural / Teriyaki / Hot & Spicy / Wasabi)

Butler Oh | butler.oh@gmail.com
1-347-556-3113

www.bcsroyal.com

bcs International Seaweed Brittle

The healthy alternative to chips!
4 Flavors (Sesame Seed & Sea Salt / Crushed Almond / Sesame Seed & Hot & Spicy / Wasabi & Sea Salt)

Susan Kim | skim@bcsroyal.com
1-718-392-3355

www.gitdeum.com

Gitdeum Seaweed Crunch

Seaweed Crunch is Kimbugak (Korean traditional snack) made with seaweed and rice flour.

- Gluten-free
- No synthetic coloring
- No artificial flavoring

Tae-sung Yang | tsyang@gitdeum.com
82-63-715-1900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t Center New York

Korea Agro-Trade Center, New York
111 Great Neck Road, Suite 503, Great Neck, NY 11021
mkim@at.or.kr | Tel: 516-829-1633

CHAPTER NEWS

뉴욕 한인 식품협회

● 뉴욕시 느닷없는 업소간판 단속

퀸즈 자메이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K모씨는 최근 빌딩국과 환경통제위원회(ECB)의 합동 단속반원이 내민 벌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고지서에는 벌금이 무려 5,000달러로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뭐가 문제냐고 묻자 '행어 퍼밋' 없이 불법으로 설치했다는 게 이유였다.

장사를 한 지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이제껏 아무말 안하다가 갑자기 행어 퍼밋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찌자는 거냐고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처럼 최근 퀸즈와 브루클린, 브롱스 일대 상가에 행어 퍼밋 없이 간판을 내건 상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천 달러에 달하는 벌금 고지서를 발부되는 한인 상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적발 업소들 상당수는 뉴욕시 빌딩국 뿐 아니라 소방국, 환경통제위원회까지 나서 시정명령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업소 경영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올해 초 단속반으로부터 적발된 퀸즈 플라싱의 한 델리가게 관계자는 "십 수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영업을 해왔는데 갑자기 간판 단속을 나와 이래 저래 8,000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며 인근 업소의 경우에는 2만달러가 넘는 벌금을 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일반 옥외 간판은 벽에서 12인치 이하, 양면간판은 벽에서 18인치 이하로 부착해

야 한다. 또 도로 폭에 차이가 있지만 6~7피트까지 나올 수 있으며 글자 높이는 최고 12인치, 전기 간판은 최고 50스퀘어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간판 행어 라이선스가 있는 간판업체를 통해서만 달아야 한다.

뉴욕시 간판행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공간간판의 한 창건 사장은 "아직까지 행어 퍼밋이 뭔지를 잘 모르는 한인 업주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최근 단속이 늘어난 만큼 미리 행어 퍼밋 보유 여부를 확인해 단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뉴욕시 소매업소에 제공 하는 비닐·종이 봉지를 유료화 추진



뉴욕시 소매업소에서 제공되는 비닐·종이 봉지를 유료화하는 방안이 이르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19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뉴욕시 수석부시장인 앤서니 쇼리스는 최근 WNY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닐 봉

지 등에 아주 적은 이용 금액을 부과하더라도 쓰레기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며 "청소국 국장과 함께 쓰레기 줄이기 방법을 논의 중인데 이 방향(봉지 유료화)으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브래드 랜더(민주.39선거구)와 마가렛 친(민주.1선거구) 시의원이 봉지 한 장에 10센

트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렇게 발생한 수입은 해당 업소에 돌아간다. 시의원 51명 중 과반수에 가까운 20명이 이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랜더 의원에 따르면 올 가을부터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업주들은 봉지를 유료화할 경우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뉴욕그로서리스토어협회 브래드 거스트맨 대변인은 "스몰 비즈니스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1년 연봉이 3만 달러인 가정에선 한 푼 한 푼이 아깝다"고 반대했다.

뉴욕시에서 폐기되는 비닐 봉지는 연평균 52억 장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정부는 매년 10만개의 비닐 봉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1000만 달러를 들여 타주 매립지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또한 비닐 봉지 유료화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제안 내용은 봉지 한 장 당 6센트를 부과하고 수입은 시정부가 거둬들이는 방안이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현재 전국에서 비닐 봉지 사용 금지 또는 유료화를 시행중인 곳은 워싱턴DC와 LA, 샌프란시스코, 새너제이 등이다. 워싱턴DC는 장당 5달러를 부과하며 LA 등은 아예 비닐 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뉴저지주도 지난 2012년 봉지 한 장에 5센트를 부과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 뉴욕시 식당 야외 테라스 좌석 만들기 어렵다

뉴욕시 식당들이 야외 테라스에 테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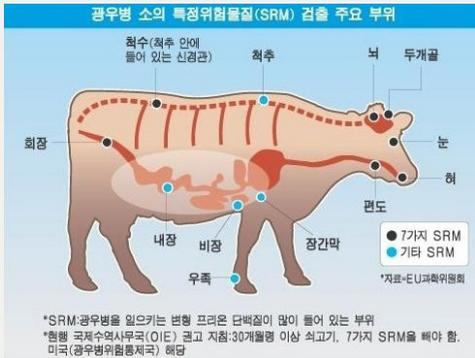
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 뉴욕시에서 처음 시행된 야외 테라스 좌석 라이선스는 변호사와 건축가 등의 자문료를 포함해 2만4000 달러

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마저도 야외 냉·난방시설이나 조명 설치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이며 승인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에 따르면 DCA는 연간 야외 테라스 라이선스 요금으로 1억16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라이선스 비용이 비싸지만 광고효과와 매출 상승 때문에 라이선스를 얻고자 하는 업주들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신문은 맨해튼에 있는 레스토랑 찰리 버드가 최근 야외 테라스 좌석을 55개에서 98개로 두 배 가량 늘렸더니 일주일 후 손님이 25%나 늘었다고 전했다.

한 레스토랑 업주는 "우리는 야외 테라스 공간을 단순히 테라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광고 수단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600개 가량에 불과했던 야외 테라스 식당들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현재 13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DCA에 신청해 검토를 거친 후 도시개발국(DCP)의 심사를 다시 받는다. DCP는 제출된 서류를 뉴욕시 조닝 규정에 적합한 지 검토 후 지원서를 승인한다. 지원서 승인이 나면 DCA의 담당 부서에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커뮤니티보드(CB)로 서류를 보낸다. 이 과정에서 커뮤니티보드가 좌석 수를 줄이려고 하거나 문 닫는 시간을 당기려고 하는 데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식당에서는 변호사나 홍보전문가를 고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업주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다. 그러나 커뮤니티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테라스 좌석을 늘려야 한다는 업주들의 입장과는 달리 CB에서는 도로가 좁아지고 규정을 어기는 업주들도 있어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는 입장이다. 밥 곰리 CB2 매니저는 "업주들이 허가된 좌석의 수를 초과해 밖으로 내 놓는다거나, 영업시간 외에도 의자와 테이블을 내 놓는 등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라고 말했다.

● 뉴욕시 식당 '광우병 쇠고기' 유통

뉴욕시 식당에 유통된 소고기에서 광우병을 유발시키는 위



험물질이 검출, 리콜 조치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농무부(USDA)는 12일 미주리소재 '프룻트랜드

아메리칸 미트(FAM • Fruitland American Meat)가 생산·유통시킨 '립 아이(Rib Eye) 브랜드 소고기 제품에서 광우병 유발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것이 발견돼 4,012파운드를 전량 리콜했다고 밝혔다. 리콜 제품은 80파운드와 40파운드짜리 'Rain Crow Ranch Ribeye' 제품으로 2013년 9월부터 올해 4월 사이에 생산·포장된 것으로 커네티컷의 홀푸드(Whole Foods) 물류센터를 거쳐 뉴욕시 일부 식당들과 뉴잉글랜드 지역의 소매점 등에서 판매됐다. 포장 겉면에는 USDA인증 마크와 공정번호 'EST. 2316' 라벨이 찍혀있다.

농무부는 문제의 소고기가 유통된 뉴욕시 식당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해당 제품을 먹고 이상증세를 보인 환자는 없는 만큼 이번 리콜조치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낮은 클래스 II로 분류했다. 이번 조치는 FMA사의 가축도살 현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이뤄졌다. SRM은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 일명 광우병)을 유발시키는 감염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쇠고기의 일부 기관 또는 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농무부는 월령 30개월이 넘는 소를 도축할 때 SRM이 포함된 뇌와 척수 조직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리콜조치로 연방정부의 광우병 검역 체계가 허점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SRM이 도축·가공 과정에서 완벽히 제거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유통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자칫 육류업계는 물론 한인 식당을 비롯한 요식업계가 이번 리콜 조치 불똥이 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농무부는 지난 2008년에도 텍사스 소재 벨텍

스사의 '프론티어 미츠'와 미주리주 소재 '파라다이스 로커 미츠'사 제품 3,000여 파운드를 리콜 조치한바 있다.

뉴욕시 여름철 식당위생 검사 '요주의'

사례 1=퀸즈 플러싱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통풍을 위해 식당 뒷문을 열어뒀다가 뉴욕시 보건국에서 나온 검사관으로부터 티켓을 받았다. 벌레의 침입을 막는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문을 열었다는 이유에서다.

사례 2=맨하탄에서 일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 B씨는 밥주걱이 마르지 않도록 물에 담가 놓았다가 위생국 검사관으로부터 벌점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온에 놓인 주걱의 밥풀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여름이 되면서 이처럼 요식업소들에 대한 시 위생국의 검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기온이 오르면서 식재료나 조리 도구에서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는데다 파리과 같은 벌레들이 많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규정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는 게 위생국의 설명이다.

여름철 한식당들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항은 무엇보다 온도 관련 규정이다. 시보건국에 따르면 따뜻한 음식은 조리되어 나올 때 화씨 140도 이상, 찬 음식은 41도 이하여야 한다.

특히 한식당에서는 공기밥을 미리 준비해놓고 보온 실에 넣어뒀다가 140도가 되지 않거나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뒀다가 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 온도가 41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함지박의 김영환 사장은 "한식당들은 자주 반찬을 내놓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뒀다 하더라도 온도 유지가 쉽지 않다"며 "온도가 오르지 않도록 반찬통 밑에 얼음을 채워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상할 수 있는 음식이 상온에 보관



될 때 '푸드 트래킹 레이블'을 부착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따뜻한 음식은 조리 후 4시간까지, 찬 음식은 조리 후 70도를 넘지 않는 범위내 최대 6시간까지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한데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레이블에는 음식물 종류와 최초 조리 시각, 조리 직후 온도, 최대 보관 가능 시각 등을 적어야 한다. 조리실 위생 유지에 대한 점검도 철저하게 이뤄진다. 행주나 도마를 쓰고 싱크대 주위에 아무렇게 놓아둔다든지 주걱에 밥풀이 붙어있는 채로 방치하는 것도 모두 위반사항이다. 특히 여름철 조리실과 연결된 문이나 창문을 무심코 열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방충망을 설치해야 한다.

뉴욕시 보건국의 추문영 보건 아카데미 강사는 "위생 등급제를 실시한지 3년이 됐지만 여전히 정확한 세부 규정을 알지 못해 티켓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음식물 부식이 쉬운 여름철에는 식재료 온도나 조리실 위생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 뉴욕주 의회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흡연은?"

뉴욕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놓고 주지사와 의회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논쟁의 쟁점은 마리화나 처방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다. 현재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암 등 난치병 환자들에게 흡연 형태의 마리화나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흡연용 마리화나 처방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마리화나를 흡연하는 것이 진통 효과가 낮고 오히려 마약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 정치 전문 라디오프로그램 '캐피털 프레스룸'에 출연해 "아직 문제점들이 남아있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

결할 수 있다면 완전한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문제만 일으키는 시스템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이민 지난해부터 상정돼 있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흡연 등 처방 방식 등에 쿠오모 주지사가 이의를 제기해 새로운 개정안이 마련돼 있다. 이번 논쟁은 개정안에도 흡연 처방 방안이 그대로 남아있어 쿠오모 주지사의 반발을 산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 발의자인 데이안 사비노(민주·23선거구) 의원에 따르면 의료용 마리화나 지지자들은 흡연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비노 의원의 개정안은 21세 이상 난치병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흡연 형태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비노 의원은 "흡연 처방을 대체할 여러 방법을 강구해봤지만 의사나 환자 권익보호자들은 마리화나를 흡연하는 것이 진통을 없애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며 "또 수량 관리에도 흡연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주의회가 쿠오모 주지사의 이의를 받아들여 흡연 대신 수증기 등 다른 방식으로 처방하도록 바꿔 승인하면 미네소타주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비흡연용으로 처방하는 주가 된다. 이번 법안은 이번주에 주상원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기존 법안에 담겨있던 마리화나 처방 대상 질병 가운데 당뇨(diabetes)·낭창(Lupus)·뇌진탕 후 징후군(post-concussion syndrome) 등은 제외됐다.

●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BYOB

(식당 내 주류 반입)' 업소 내 소주 반입 불가

주류면허 소지업주들이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BYOB(식당 내 주류 반입)' 업소 내 소주 반입 불가 입장을 재확인 했다.

버겐카운티 한인 레스토랑협회(BKORA 회장 방희석)는 22일 열린 팍팍 시의회 7월 정기회의에 참석해 소주는 뉴저지주 주류국(ABC) 규정에 의해 BYOB 업소에 반입할 수 없는 주류라고 강조했다.



BKORA의 법률 대리인으로 참석한 월렌츠 법무법인의 존 E. 호간 변호사는 BYOB 업소 내 반입이 가능한 주류는 '와인'과 '맥주'라며 증류주인 소주는 독주로 결코 BYOB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KORA 방희석 위원장은 "소주는 '독주(Hard Liquor)' 세금이 부과되는 수입 주류이기 때문에 BYOB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BYOB 업주들이 계속해서 소주 반입 문제를 이슈화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뉴저지주 주류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류면허 소지 업주들도 "소주 반입 문제는 지난해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라며 "팻팩 시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입을 모았다. BKORA의 이날 BYOB 업소 내 소주 반입 불가 입장 재확인 은 지난 달 BYOB 업주들의 팻팩 시 'BYOB 조례 1539' 수정 요구 및 청원서 제출과 고든 존슨 주하원의원의 관련 법안 상정 계획(본보 6월18일자 A1,3면 등)에 대한 주류면허 업주들의 반대 입장 표명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뉴저지주 주류국(ABC)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수입업자가 소주를 와인 등 소프트 리쿼(Soft Liquor)로 들여올 수 없다면 소주는 BYOB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타운정부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로튼도 시장은 이날 지난해 논의하다 중단된 BYOB 업소 영업시간 연장에 대해서 다시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 뉴저지주 팻팩시 '소주 분쟁'

뉴저지주 팻팩시 BYOB(Bring Your Own Bottle) 라이선스 소지 업주들이 타운정부의 소주 반입 단속을 중단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BYOB 업주들은 26일 열리는 팻팩 타운의회에서 "소주는 '하드리케(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가 아니며 이 때문에 BYOB 업소에 소주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는 청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타운의회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되는 '워크션'에서 BYOB 청원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 업주들의 입장을 듣



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처음 불거졌던 팻팩 '소주 분쟁'은 2라운드를 맞게 됐다.

BYOB는 와인이나 맥주 등 하드리커가 아닌 주류를 고객이 식당 등에 직접 가져와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팻팩의 경우 지난 2009년 9월 발효된 조례(NO1539)를 통

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리커 라이선스 소지 업주들은 "소주는 곡주가 아닌 증류주이자 독주이기 때문에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타운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9월부터 BYOB 식당·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소주 반입을 단속해왔다.

하지만 해당 업주들은 소주를 하드리커로 분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김&배'의 김봉준 대표 변호사는 "BYOB 제도에 맥주와 와인 등이 명시된 것은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소프트리커의 대표적인 술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소주를 하드리커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와인 가운데는 도수가 10도 중반에서 20도 중반까지인 제품도 있다. 이는 미국에 들어오는 소주와 도수가 거의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소주가 증류주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곡류를 발효시켜 증류한 술이기 때문에 곡주라고도 볼 수 있다"며 "캘리포니아주는 1999년부터 뉴욕주는 2002년부터 소주를 하드리커가 아닌 소프트리커로 취급하고 있다. 더욱이 뉴저지주법에도 소주를 하드리커로 분류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 소주가 하드리커라며 반입을 단속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OB 업주들은 "타운의회가 한인들이 가장 즐겨하는 주류인 소주 반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한인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청원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소주 분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뉴저지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엘프’ 활용 ‘불량 음식점’ 퇴출

뉴욕시보건국이 생활정보사이트 ‘엘프’를 통해 ‘불량 음식점’을 속아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시는 유명 컬럼비아대학과 공동으로 소비자들이 엘프에 올린 ‘후기’를 일제히 검색해 위생에 문제가 있는 음식점을 찾아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컬럼비아대학 소프트웨어개발팀은 2012~2013년 사이 9개월간 엘프에 올라온 29만4,000건의 음식점 방문 후기를 뒤졌다. 특히 후기 가운데 ‘배가 아팠다’, ‘토했다’, ‘설사’ 등의 표현을 집중적으로 찾아내 후기를 올린 사람들과 연락, 방문한 음식점을 찾아냈다. 실제로 이를 통해 개발팀은 16명이 음식점 3곳에서 샐러드, 새우, 랍스터, 마카로니, 치즈 스프링롤 등을 먹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보건국 관계자는 “특정 음식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빨리 알면 알수록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면서 “이번에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사람들이 음식점에서 무엇을 먹고 탈이 났는지를 알아낸 뒤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시는 엘프 외에도 다른 생활정보 사이트를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해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엘프는 이미 미국내 여러 도시와 손잡고 각 음식점의 위생평점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 타주 담배 반입해온 뉴욕 한인 처벌

담뱃값이 저렴한 버지니아주에서 상습적으로 담배를 반입



해온 뉴욕 한인이 중범죄로 기소됐다. 버지니아주 세난 도어카운티법원 대배심은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최모 씨를 불법 담배 유통과 세

금 탈루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버지니아에서 3000갑 이상의 담배를 뉴욕으로 반입해온 혐의다. 버지니아는 전국에서 담뱃값이 가장 싼 주의 하나이며 뉴욕시와 비교하면 갑당 8~9달러의 차이가 난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탈세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보루당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가주 한인 식품협회

● 몬트레이 한국학교 운영 성금 전달



지난 27일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한국식당에서 가진 KAGRO 이사회에서 한국학교 기금 2500달러를 전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장종희 KAGRO 회장, 조덕현 한국학교 교장, 지대현 KAGRO 이사장.

(KAGRO, 회장 장종희)가 지난 5월27일 이사회를 열고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 결산 및 몬트레이 한국학교에 기금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저녁 시사이드 소재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한국식당에서 가진 이사회에는 장종희 회장, 지대현 이사장 등 KAGRO 임원진 8명이 참석, 지난 13일 압토스 소재 시스케이프 골프장에서 가진 지역학생 장학기금 및 한국학교 기금 모금 골프대회 결산회의를 가졌다. 장종희 회장은 결산회의에서 “김복기 KAGRO 초대 회장, 몬트레이 한인회·노인회 등 각급단체 에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특히 올해는 한국학교에 충분한 기금을 전달할 수 있어 더욱 기쁘다”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 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조덕현 한국학교

장에게 지원금 2500달러를 전달하고, 2세들의 한글 및 한국문화 교육에 열정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타클라라 카운티 전자담배사용 규정 강화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전자담배의 흡연 규정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카운티가 소유한 공

공시설에서 전자담배의 흡연을 금지한 지난 3월의 발의안에 이어, 식당이나 바, 모텔 등 모든 공공 건물 내에서도 전자담배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출입문에서 30피트 이내에서도 흡연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자담배 판매권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전자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담배 판매권과 같이 매년 425달러의 판매 허가권을 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선봉에서 있는 켄 예거 산호세 슈퍼바이저는 “전자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중에 있지만 전자담배에 관련된 부작용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된 초기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초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안이 발효되면 다른 주의 전자 담배와 관련된 법률 제정의 선구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자담배의 강력한 제재발의안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쿠퍼티노에서 반평생을 담배와 함께 살아왔다는 금연 대안 협회소비자 옹호회 소속 레베카씨는 “담배를 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 봤는데도 결국은 실패하였고, 현재 전자담배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전자담배와 건강에 관련된 확실하지 않은 정보들을 기준삼아 사람들을 겁박하고 전자담배의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존의 담배를 피우라고 권유하는 것과 같은 조치라며 당국을 비판했다.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협회

● 9월부터 사용 유료화 된다

설치비 50달러 월 사용료 · 75달러—자동 이체

오는 9월부터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 카드 단말기 사용료로 월75달러가 부과돼 일선 사업자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연방정부 농무부가 EBT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일선 업주들에게 편지와 전화로 통보하면서 확인됐다. 연방정부 통지문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발효된 농업법에 따라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예산 가운데 80억 달러가 삭감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것이다.

필라델피아에서 식료품 상을 운영하는 한 동포 C씨는 “최근 펜실베이니아 주의 EBT 단말기를 총괄하는 제록스사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다”며 통보 내용은 최초 설치비로 50달러를 내고 매달 75달러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설치비는 한 번만 내면 된다. C씨는 “한 달 이내에 설치비와 한 달치 사용료를 보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앞으로 매달 75달러씩 자동 이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득이나 마진이 줄고 매출도 감소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액수에 상관 없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완동 필라델피아 한인식품인협회장은 “아무리 연방정부 예산이 삭감됐다 해도 지역 실정을 무시한 지나친 행정”이라며 “푸드 스탬프 액수가 많지 않은 곳은 월75달러의 사용료가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부득이 월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액



수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완동 회장은 또 "아직 정식 통보를 받지 못한 곳이 적지 않다"고 밝히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정부나 제록스 사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완동 회장은 "예산 삭감으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라 해도 일선 업소들의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탁상 행정"이라며 "푸드 스탬프가 저소득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단말기 사용료로 연 900달러를 징수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식품점을 운영하는 한 동포는 "칩 등 마진도 적고 액수도 적은 상품을 팔아 75달러를 내기 어렵다"며 갈수록 악화되는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필라델피아시 담뱃값 대폭 인상될 전망

필라델피아시 담뱃값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펜실베이니아주하원은 지난 2일 필라시 담배에 붙이는 판매세를 한 갑당 2달러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HB 1177)을 치열한 논쟁 끝에 찬성 119표 반대 80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인상안은 8일 상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상원에서는 이미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통 코벳 펜실베이니아주지사는 법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상으로 올해 추가적으로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는 4500만 달러로 재정부족을 겪고 있는 필라시 공립학교에 쓰일 전망이다. 마이클 너터 필라시장은 "재정부족으로 인해 담배세가 인상되지 않으면 1300여 명의 교사를 해고해야 하는 동시에 이번 가을학기 개학을 미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담뱃값은 매년 보통 두 차례 인상된다.

일반적으로 한 번 인상할 때마다 10갑들이 1보루당 평균 1달러 미만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 담뱃값 인상폭은 무려 20배가 넘는다. 이에 따라 한인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운다는

김태훈씨는 "흡연자들이 '봉'도 아니고 세수 부족을 흡연자들을 통해 메우려는 정부의 정책에 어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담배세 인상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그 동안 타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한인 흡연자들이 필라시로 가서 담배를 구입했으나 오히려 필라시에서 가까운 남부뉴저지로 오는 역전현상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필라시 담뱃값은 말보로의 경우 한 갑당 평균 6달러70센트~6달러80센트로 남부뉴저지(한 갑당 8달러20센트~8달러30센트)에 비해 1달러50센트가 싸다. 한편 뉴저지주의회도 전자담배와 시가에 부과되는 세금을 각각 75%와 30%씩 인상하는 법안(SB 1867)을 추진하고 있다.

남가주 한인 식품협회

● 'LA 노점 합법화' 난관

LA다운타운의 노점 합법화 추진 움직임이 새로운 난관에 부딪혔다. LA시의회가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지처럼 지하경제인 노점을 양성화시키려 하자 로컬 비즈니스 업주들과 커뮤니티 리더들이 소생하고 있는 다운타운 경제와 상점 업주들의 비즈니스 성장을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패션디스트릭트 비즈니스개선지구(BID)의 켄트 스미스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는 "LA시가 노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법과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지만 급증하고 있는 노점상을 통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또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원 조달 계획도 분명치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로컬 업주와 커뮤니티 리더들은 ▶보행자 안전 ▶쓰레기와 쥐 등 위생 및 환경오염 ▶지역 치안 ▶각종 퍼밋과 보건 점검상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합법화안에 반대하고 있다.

업주들은 노점으로 인해 보행자들이 보도에서 차도로 밀려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다 노점들의 오수와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점상들이 많아지면 이들을 노리는 갱의 활동이 활발해져 지역 치안이 불안해지고 규제에 필요한 퍼미트는 물론 음식 취급 노점상들의 헬스 인스펙션도 쉽지 않아 소비자 건강의 위해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이들은 "1994년에 이미 '보도 노점 지구 특별 조례안'을 LA시가 수용해 시행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며 합법화의 실효성도 의문시하고 있다.

반면 호세 후이자와 커렌 프라이스 등 시의원 2명을 포함한 이안의 지지자들은 소상공인들을 돕고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노점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영세상인들의 경제 기여도가 적지 않으므로 이들을 잘 규제하고 양성화하면 다운타운 비즈니스 성장과 경제적 측면에서 이익이 클 것이라곤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노점상들에게서 걷은 수수료로 순찰 및 감사활동을 강화하면 보행자와 소비자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는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LA 시가 추가 수입원을 확보하더라도 경찰과 감사 인력을 확대하지는 못할 것이며 LA 시가 합법화안을 시행할 경우 타주의 불법 노점상들이 LA 시로 몰려와 다운타운 주위 환경과 치안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 "가주 최저임금 더 올려라"

지난 1일부터 가주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9달러로 오른 가운데 최저임금 추가 인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지난해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저임금 인상법(AB10)이 발효된데 따라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지만 가주 의회와 일부 로컬정부가 최저임금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마크 레노 가주 상원의원은 임금 상승 폭이 연간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2017년에 시간당 최

저임금을 13달러까지 높이는 안을 상정했지만 하원 통과에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최저임금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어 조만간 새로운 법안을 내세울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법 전문가 애런 르바토리는 "1일부터 오른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한 첫발을 내디딘 것은 맞지만 인상 폭은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가주에서 가장 높은 시간당 10.74달러의 최저임금 규정을 두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시에서는 점진적으로 임금을 상향조정해서 2018년 7월 1일부터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발의안이 11월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인접 오�클랜드, 버클리, 리치몬드 등 베이지역 도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LA 시도 호텔 노동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5년 7월에 15.37달러까지 올리는 안을 발의, 최저임금을 독립적으로 인상하려는 로컬정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경제계 일각에선 최저임금이 너무 높으면 젊은층의 구직을 방해하고 일부 중소기업이 오른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감원해야 할 경우도 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임금의 추가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LA 지역 가구당 중간소득은 2005년 이후 11%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올림픽경찰서에서 ABC 세미나

조만간 LA 지역에서 미성년자 술판매 관련 경찰의 집중 단속이 펼쳐질 전망이다. 가주 한미식품상협회(KAGRO.회장 김종철) 주최로 지난 28일 오전 10시부터 올림픽 경찰서에서 열린 ABC 세미나에서 경찰은 향후 2주 안에 미성년자를 동원한 함정수사



를 펼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미성년자에게 절대 술을 팔지 말 것을 권고했다.

올림픽 경찰서 제임스 정 순찰반장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게 되면 벌금은 물론 가게 문도 일정 기간 닫아야 한다"며 "술을 사려는 고객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갈 경우에는 신분증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술을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와 함께 취객에 대한 술 판매 금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LA 다운타운 LAPD 본부 페르난도 가르시아 서전트는 "주류를 구입하려는 고객이 술에 취한 것 같다면 절대 판매를 해선 안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500달러의 벌금과 15일에서 20일 사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술 취한 고객 분별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가르시아 서전트는 "고객의 눈이 충혈이 됐는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흐느적거리는지,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지, 계산을 제대로 하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며 "리커스토어나 마켓 외에 술집에서도 바텐더가 이미 취한 고객에게 술을 판매하면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취객이 업소 내에서 행패를 부릴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 해줄 것도 당부했다. 정 반장은 "취객에 술을 팔지 않는 과정에서 말싸움이 생길 수 있고 취객이 행패도 부릴 수 있다"며 "이 때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행패를 부린 고객은 다른 곳에서도 행패를 부릴 수 있다. 경찰 리포트를 해놔야 향후 용의자 체포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LA 지역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 30여명이 참석했다. KAGRO 김종칠 회장은 "최근 방학 시즌인

만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게 될 경우가 늘어난다"며 "이번 세미나는 미성년자 술판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가주" 종업원 상해보험 없거나 무면허 업체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종업원 상해보험 없거나 무면허 업체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됐다. 보험국을 비롯해 노동청, 고용개발국, 사업체 면허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팀은 최근 LA,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벤투라 등 남가주 업체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00여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6개 업체에는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업체들에도 벌금 등이 부과됐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00여 명의 조사관들이 동원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비즈니스에 필요한 각종 라이선스를 갖추지 않았거나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이나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업체다. 데이브 존스 가주 보험국 커미셔너는 "불법 비즈니스는 가주 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준다"고 단속 배경을 밝혔다. 가주 보험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불법 비즈니스를 보면 즉시 1-800-927-HELP로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 남가주식품상협회 저렴한 가격 재활용봉투 공급

오는 7월부터 LA시 내 리커스토어나 그로서리 마켓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것과 관련, 가주식품상협회(회장 김종칠·KAGRO)가 협회 회원사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재활용 백을 제공한다. 17일 가주식품상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중 홀세일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재활용 봉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트리플 원 마켓 서플라이'(대표 마이크 윤)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KAGRO 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회원사들에 혜택 제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종칠 회장은 "현재 회원사들은 불경기에 오는

7월부터 인건비까지 상승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며 “따라서 회원사들에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계획하게 됐다”고 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KAGRO 회원은 시중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재활용 봉투를 구입할 수 있으며 구매금액과 상관없이 무료 배달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단 1회 주문 금액이 150달러가 넘는 경우에만 당일이나 익일에 배송을 받을 수 있으며 10% 추가 할인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인해 그간 구매력이 크지 않았던 소규모 업체들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회장은 “영세업자의 경우 요즈음 사업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총 3,000개에 달하는 KAGRO 회원사들의 ‘바잉 파워’를 바탕으로 소규모 업체들까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버지니아 한인 식품협회

●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푸드트럭 영업 허가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시의회가 ‘푸드트럭’ 시범영업 실시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레스토랑 업주들과 교통체증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수년째 무산되어 왔던 ‘푸드트럭’ 허용법안은, 지난 17일 알렉산드리아 시의회 14개월의 시범영업이라는 조건으로 4-2로 표결을 통과해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된다. 단 이번 푸드트럭 시범영업은 600 달러의 영업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한 사업자들에게 한하며 공원과 대형 주차장, 이벤트가 펼쳐지는 학교 인근에서만 가능해 일부 푸드트럭 업주들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표결을 앞두고 지난 달 열린 공청회에서는 업주들과 주민들이 참석해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다. DC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DC에서는 이미 너무 많은 푸드트럭이 영업중이라 포화상태다. 알렉산드리아나 북버지니아에서의 영업은 수많은 푸드트럭 업주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

했다. 지금까지 푸드트럭을 반대해왔다는 지역 여성은 “식품위생이나 지역상인들의 피해라는 측면에서 푸드트럭 규제를 찬성했지만 DC나 알링턴의 푸드트럭 음식을 직접 사먹고 생각을 고쳤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저렴한 음식점이 부족한 DC와 알링턴 지역에서는 200대 이상의 푸드트럭이 현재 성업중이다.



워싱턴 주 한인 그로서리협회

● 새 규정 · 법규 한국어로 제공되길

워싱턴 DC 식품주류상협회(KAGRO, 회장 이요섭)는 지난 21일 워싱턴DC 인권사무국이 한인 등 소수계들을 위해 마련한 지역사회 토론회 및 정보 안내모임에 참석, 한인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식품주류상협회는 “한인상인들이 정부로부터 바뀐 법이나 새로운 규정등을 한국어로 제공받게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주류상은 한인 소그룹 토의를 통해 DC 정부가 한인 언론이나 단체와 체계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 랭귀지 액세스의 질적인 향상, 새로운 법안이나 규정을 투명하게 알려 줄 것을 촉구했다. 토론회 후 정보 안내모임에서는 주민들에게 각종 건강검진,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무료 식품이 제공됐다. 이날 행사는 DC 정부가 소수계에게 DC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함과 동시에 소수계에게 정보가 충분히 반영돼야한다는 요지의 랭귀지 액세스 법안(Language Access Act) 10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인권사무국의 방하정 인턴의 사회로 오전 10시부터 소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된 토론회에는 랭귀지 액세스에 대한 내용, 이용자의 경험담, 그리고 개선의견 순으로 진행됐다. 방 인턴은 “랭귀지 액세스 법안은 DC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DC 거주자나 상인들이 영어 구사 부족으로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됐다”면서 “영어가 부족한 주민은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시 번역된 문서나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 한인업소 방법 강화 요청

워싱턴 식품주류협회(회장 이요섭)가 지난달 25일 워싱턴 DC 경찰서를 방문, 한인업소에 대한 치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요섭 회장 등 캐그로 임원진들은 이날 최근 피해 한인업소 대표 등과 함께 6 디스트릭 경찰서의 칸티 경찰 서장과 앤더슨 부서장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피력하고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캐그로는 또 한인업소 앞에서 구걸을 하거나 서성거리는 행동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칸티 경찰서장은 적극 협조할 것임을 약속하며 업소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캐그로에 따르면 6 디스트릭에 위치한 한인 S 리커 스토어는 최근 가게 밖에서 이뤄지는 불법 담배 판매로 손해를 보고 있다. 불법 담배 판매자들은 어떤 때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불법적으로 담배를 팔려고 했다고 한다. 또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하려는 사람들은 가게를 배회하기도 해 물건을 사려는 고객들의 진입도 힘들게 하고 있다. 이요섭 식품협회장은 “한인업소들이 업소에서 방법일지를 만든다면 이런 종류의 범죄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방법일지가 있으면 한인업소들은 경찰과 ANC 주민자체협회에 업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를 통해 제대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가게 주위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많으면 지역 주민들이 해당 업소에 항의를 하기도 한다”면서 “만약 방법일지를 통해 업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이런 불평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서 방문에는 잔 유 사무총장, 제이 원 사무차장과 함께 피해 업소 대표 등이 함께 했다. 문의 (301)996-3146

시애틀 한인 식품협회

● 장학금 마련을 위한 친선 골프대회 개최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장 고경호)는 지난 5월29일 장학금 마련을 위한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 화합과 단합을 통해 더욱 영향력 있는 한인 그로서리 협회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뉴케슬 콜크릭 골프코스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다양한 미 주류사회 주요 유통업체 및 밴더 등 150 여명이 참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한인 그로서리인들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행사였다. 고경호 회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한인 학생들에게 총 1만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대회를 위해 그간 후원해준 한인사회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모인 장학금은 오는 12월 연말 행사에서 선정된 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더욱 결속력있는 한인그로서리로 성장해나가기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현재 추진중인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한인그로서리인 개개인의 성장과 함께 협회가 더욱 주류사회에 영향력 있는 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회가 목표하는 계획과 다짐들은 혼자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개개인을 떠나 한인 그로서리인의 영향력과 힘을 미 주류사회에서 더욱 높일 수 있기 위해서는 협회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남성부 메달리스트에 김범수, 여성부 메달리스트에 김순덕이 차지했다.

남성 챔피언 박성모, 권순철, Mike Smothers,
여성 챔피언 실비아 최, 이 켄마.
남성부 1위 John Garrison, 김종곤, James Lee,
2위 홍영식, 이선희, 장재영, L.D 권순철, K.P 김희철
여성부 1위 조난영, 홍재선
2위 최수진, 최영희, L.D 홍재선, K.P 김영옥



KAGRO INTERNATIONAL

국제 한인 식품 주류상 총연합회

International Korean Grocers and Licensed Beverage Association

361- 3rd Avenue, New York, NY 10016 (TEL)1-646-670-6631 (FAX) 1-212-532-0314

각 지역 협회 회장 및 이사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제51차 총회가 아래와 같이 장소 및 날짜가 확정 되었기에 각 지역 협회에 알려 드립니다.

제51차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 정기 총회 안내

- 총회 날짜: 2014년 10월25(토요일) ~ 10월29(수요일)/ 4박5일
- 장소: **코스타리카 (Costa Rica)**
- 호텔 주소: **WYNDHAM HERRADURA** 또는 동급
주소: 미 확정(차후공지) (Home) <http://www.wyndham.com/>
- 셔틀버스운행안내: 공항<==> 호텔 사이 셔틀버스 운행안내 (차후공지)
- 접수마감: 2014년 7월31일
- 참가 비용: (1) 각 지역 협회 회장 및 이사장: \$350.00(1인당)
(2) 동반자: \$550.00(1인당)을 7월31일 까지 총연 으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불 포함 비용: 가이드 팁(\$40.00) , 공항 세 (\$29.00)
- Pay To: KAGRO International
361- 3th Ave, New York, NY 10016
- 참가 신청서: 참가 신청서에 (첨부파일참조) 참가자 명단을 기재 하여 총연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e-mail: kagronational@gmail.com 또는 Fax: 1-212-532-0314 로 제출

기타 준비 사항

- 총회에 참가 하시는 각 지역 협회 회장.이사장님은 1인당\$350.00 을 참가비로 지불 하셔야 하며 나머지 비용은 총연 에서 부담을 합니다.
- 동반자로 동행 하시는 회원은 \$550.00 을 참가비로 지불 하셔야 하면 나머지 금액은 총연 에서 부담을 합니다.
- 참가비용에는 호텔(2인1식) 관광버스.식사.각종 입장료 가 포함되어 있으나. 가이드 팁 및 개별 적인 팁 은 개인이 부담 하셔야 합니다.
- 호텔 예약 및 방 배정을 위하여 7월31일까지 참가자 접수를 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텔 예약이 완료된 상황에서는 환불이 불가 하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지역 협회는 2014년도 총연합회 회비(\$500.00)를7월31일 까지 참가 비와 함께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51차 총회를 위하여 각 지역협회 회장.이사장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총회 세부 일정 및 현지에서 필요한 준비물은 차후 공지 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05월 22일

국제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 회장 허성철

전주국제 발효식품 엑스포

The 12th International Fermented
Food Expo - Jeonju 2014

www.iffex.or.kr

생명을
살리는 발효
IFFE 12th
Since 2003 International
Fermented Food Expo



IFFE 2014
Since 2003 International
Fermented Food Expo

참가업체 모집안내

2014.10.23
▶ 10.27

전주월드컵 경기장
Jeonju Worldcup Stadium, KOREA



주최 _ 전라북도  전주시 주관 _  사단법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

후원 _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대 RIC센터, JETRO SEOUL, TAITRA SEOUL, 일본요코테발효문화연구소, 중국심양성세전람공사, 세계한인무역협회
협력 _ 한국수입업협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주한한독상공회의소, 주한한불상공회의소, 후쿠오카상공회의소

Visit us at www.kagro.org

Our organization profile

Advertising opportunity for KAGRO Journal

Link for various KAGRO capture and Affiliate Organizations.

원고를 모집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경험담이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 또는 여러분의 의견과 잡지에 대해 느끼신점 반영되었으면 하는 의견들 그리고 사업운영하며 협회에 건의사항 등 모든글들을 환영 합니다. 영어나 한글 편하신 언어로 사진 · 연락처와 함께 email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end your submission to : kagronational@gmail.com

361-3rd Ave, New York NY 10016



Advertising space available for KAGRO Journal

KAGRO Journal Ad ask Seong c. Heo [917 650-2125](tel:9176502125)

361-3rd Ave, New York NY 10016

e-mail : kagronational@gmail.com

Business News

LA 조세형평국 주말 현금장사에 대한 단속



가주 조세형평국이 LA 다운타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말 현금장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0일

LA 다운타운 한인 의류도매상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주말 아침부터 조세형평국 직원 10여명이 한인 의류업자들이 대거 몰려 있는 마트 등을 돌며 도매업체들이 리테일 퍼밋 없이 소매로 현금장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였다.

조세형평국 직원들은 샌피드로 홀세일 마트와 페이스 마트를 중심으로 방문해 업주들을 대상으로 ▲리테일 세일즈 퍼밋 소지 여부 ▲직원 숫자 ▲업체명 ▲영업시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조세형평국은 LA 다운타운 한인 의류도매상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말장사가 대부분 소매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 역시 현금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 이날 각 업소를 기습적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발견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리테일 세일즈 세금을 보고하라는 문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형평국 관계자는 “주말 LA 다운타운 패션디스트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은 대부분 현금 거래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지역 상인들이 홀세일 퍼밋만 가지고 리테일 장사를 한다는 정보가 이어져 앞으로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 업체들에 따르면 조세형평국의 단속은 한동안 잠잠했다가 다시 강화되고 있는데, 지난 주

말 단속을 고비로 더욱 그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의류업체 관계자는 “이날 단속을 나온 조세형평국 직원이 ‘도매상권 주말시장이 보통 언제부터 시작하느냐’고 물었다”라며 “아마도 7시부터 단속을 나왔음에도 시장이 활기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음 단속을 더 일찍 진행하기 위해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노동법 악용... 영세업주들 '억지 합의'



장애인 공익소송에 이어 노동법까지...’ 남가주 일원에서 무차별적 장애인 공익소송 잇따르는데 이어 무차별적 노동법 소

송이 줄을 잇고 있어 한인 업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같은 노동법 소송 가운데 상당수는 동일한 변호사에 의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이미 회사를 그만둔 전직 직원들을 무더기로 동원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근로자 권익 찾기 목적 보다는 일부 악덕 변호사들의 합의금을 노린 무분별한 소송이라는 의혹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례 - 헌팅턴파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인 유통업체 A사는 7월 초 한 히스패닉 전직 직원으로부터 노동법 소송을 당했다. 지난 2012년 회사를 사직한 이 직원은 근무 당시 회사로부터 직급의 수준에 맞지 않은 임금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전 직원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 직급으로 일했지만 본인의 업무가 매니저에 걸맞은 직원 해고나 채용, 감독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근무기간을 역으로 계산해

미지급된 오버타임, 휴식시간 미보장, 소셜시큐리티 미지급금, 변호사 비용 등에 해당하는 배상액을 요구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A사 측 관계자는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규정대로 급여 및 휴식시간을 다 보장했는데 소송을 당해 억울하다”며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려고 했으나 캘리포니아 노동법 자체가 고용주에게 다소 불리하다는 게 변호사의 조언이어서 고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홀세일 업체인 B사도 지난 5월 퇴사한 전 직원으로부터 매니저 직급에 대한 임금 및 처우가 없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B사 대표 서모씨는 “10년 가까이 근무한 직원이 갑자기 사직하더니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해 왔다”며 “변호사는 합의를 권고했지만 친동생처럼 챙겨준 직원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억울한 심정에 재판을 끝까지 진행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실태 한인 -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처럼 최근 한인 대형 홀세일이나 유통업체를 상대로 전·현직 직원들이 근무 당시 노동법 위반을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노동법 자체가 종업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원고(종업원)의 경우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고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에만 배상금을 변호사와 배분하는 ‘성사 사례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피고(대체로 업주)는 변호사 비용이 자기 주머니에서 고스란히 나가 재판을 오래 끌수록 금전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로 인해 노동법 소송을 당한 업주의 대부분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고 측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고 분쟁을 종결하는 게 현실이며, 이를 노리고 최근 법조계에도 불어 닥친 불경기를 넘기 위해 일부 변호사들이 닥치는 대로 이와 같은 무차별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조계도 우려** - 법조계에서도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노동법 소송이 장애인 공익소송처럼 일부 악덕 변호사들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주변에서 동일한 소송을 당한 업체들의 소장을 비교해 보니 4건 가운데 3건이 동일한 변호사로 나타났다”며 “특히 일부에서는 한 권익옹호단체가 변호사와 짜고 직원들을 부추겨 소송을 제기한다는 후문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노동법 공익소송에 대해 전문 변호사들은 업주들이 기본적인 노동법규에 대해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 에드워드 정 수석부회장은 “노동법 소송을 당해 상담을 의뢰해 온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정말 잘해 줬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인다”며 “업주들이 직원들에게 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법을 근거로 잘 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코스코·월마트 등 판매 과일에 식중독균 발견

코스트코와 트레이더 조, 월마트 등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유명 소매체인들에서 판매된 복숭아와 자두 등 과일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테리아 박테리아가 발견돼 리콜 비상이 걸렸다. 증가주에 위치한 과일 유통업체 와오나 패키징 컴퍼니(Wawona Packing Co.)는 자사가 공급한 복숭아와 천도복숭아, 자두 등에서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이 발견돼 지난 19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된 제품은 지난 6월1일부터 7월 12일 사이에 이 회사의 웨어하우스에서 포장된 것으로 미전역의 코스트코와 트레이더 조, 월마트, 샘스클럽 등으로 공급돼 판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웨그만스 푸드마켓은 해당 과일을 이용해 만든 케익과 파이, 타르트, 패스추리도 리콜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감염사태로 인한 환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방차원에서 리콜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Dietary Revolution

While our products were designed with diabetics in mind, we at **breadr.™** **whole wheat bread** know that many Americans not affected by diabetes are striving to live a healthy lifestyle and can also benefit from our products.

- Low Glycemic Index**
- Reduced Carbohydrate Content**
- Rich in Protein**
- Rich in Fibers**

Healthy Living Should Not Be a Struggle

Many people monitoring their blood sugar levels struggle with a healthy diet because functional foods often taste bland. **Breadr.™** recognizes this and ensures healthy products with **a delicious taste - and authentic flavors as, a healthy lifestyle should be.**

Now more than ever, people need facts so they can take control of their health and reach personal freedom through a healthier life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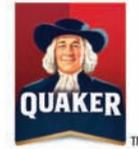
You can join us in our mission.



PEPSICO



Tropicana



빵의 종류 유래와 맛



빵의 정의

빵이란 밀가루와 물, 소금을 섞어 생지를 만들고 이것을 발효시킨뒤 오븐 에서 굽거나 찐 것을 말한다. 주원료는 밀가루,이스트,소금,물로 하고 설탕, 유제품, 계란, 식용유지 등과 그밖의 부재료를 배합하여 섞은 반죽을 발효시켜 구운 것이 빵이다.

빵의 어원

빵이란 말은 포르투갈어인 팡(Pao)이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왔으며 이때에 일본에 소개한 포르투갈어의 Pao(팡)이 일본식 발음으로 불리운데 연유되어 빵이라고 불리며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빵의 어원은 라틴어인 Panis"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영국(영어) Bread(브레드), 프랑스 Pain(뽕), 독일 Brot(브로트), 포르투갈 Pao(팡), 네델란드 Brood(브로트), 중국 면포(麵飽)라 한다.

Bread, Brot, Brood의 어원은 고대 튜튼어 인 Braudz(조각)이고, Pain,Pan,Pao, 은 그리스어인 Pa, 라틴어인 Panis이다.

빵의 역사

빵의 역사는 6,00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경에 泳汰 빵으로만 살 수 없다고 쓰여 있는 것을 보면 빵은 성서가 쓰여지기 전부터 존재하였 음을 알 수 있다. 인류의 문화가 수렵생활에서 농경, 목축생활로 옮겨 가면 서 빵의 식문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으며, 초기에 인류는 곡식으로 미음을 끓여 먹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것이 죽 ⇒ 납작한 무발효빵 ⇒ 발효빵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기원전 2,600년경에 최초로 누룩을 사용하여 밀가루 반죽을 부풀려 빵을 구웠다고 한다. 따라서 처음 빵 식문화가 일어난 곳도 이집트이며 드디어 지금과 같은 발효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고대 이집트의 빵은 기원전 800년경, 그리스, 로마로 전해졌다.

특히 로마에서는 제분, 제빵기술이 크게 발달하였는데 로마가 멸망하고 기 독교가 전파됨에 따라 제빵

기술도 함께 유럽 각지로 퍼져나가게 되었으며 그때까지 빵은 일부 특권층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그러나 그후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빵은 대중 속으로 파고 들 수 있었다. 빵을 부풀리는 효모균을 발견하여 정식으로 발표된 때는 17세기 후반이다. 그뒤 1857년에 프랑스의 파스퇴르(L.Pastreur)가 효모의 작용을 발견하였다.

5,000년의 역사를 갖는 제빵 비밀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빵을 만드는 기본 배합재료이다. 즉 밀가루, 소금, 물을 섞어 반죽한 뒤 부풀리는 것은 똑같다.

우리나라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권에 속해있어서 빵과 인연을 맺게 된지는 그리 길지 않지만 지금은 예전에 비해 식생활 패턴이 서구화 되어가고 있고 점차 빵이 주식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빵의 종류

빵의 종류는 제조 방법에 따라 크게 발효빵과 냉동빵으로 나뉜다.

- * 발효빵 ⇨ 이스트를 넣어 부풀려 만든 빵(식빵, 바게트, 하드롤 등)
- * 냉동빵 ⇨ 반죽에 들어간 버터를 냉장보관했다가 얇게 밀어서 다시 냉장보관하기를 거듭하면서 버터의 힘으로 겹과 층을 만들어 부드럽게 만든 것(파이)

밀가루의 종류

밀가루는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의 양에 따라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나뉘어진다. 용도에 따라 빵을 만들 때는 강력분이 적합하고, 피자나 케익을 만들 때는 박력분이, 국수 등을 만들 때는 중력분이 좋다.

빵 보관법

- 1) 모든 빵은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깨끗한 곳,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 2) 빵을 장기간 보관하려면 냉장 보관보다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보관하기 전에 차게 식혀서 공기와 접촉이 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 먹기 전에는 상온에서 15~20분간 두어 자연 해동 될 수 있도록 한 후에 먹도록 한다.
(되도록 20일이 넘지 않도록 한다)



제13대 집행부 명단

회 장	허 성 칠	New York
대외수석 부회장	김 영 필	Canada
대내수석 부회장	이 요 섭	Washington D.C
부 회장	허 종	Southern California
부 회장	김 희 준	Central California
부 회장	최 기 선	Washington
부 회장	김 백 규	Georgia
부 회장	이 원 재	Colorado

이사

이 사 장	홍 진 섭	Washington D.C
부 이사장	캐빈 최	Arizona
부 이사장	강 병 목	New York
부 이사장	이 광 서	Maryland
부 이사장	나 광 열	Harrisburg, PA
부 이사장	김 세 기	Chicago

본부 임원

홍보 이사	이 창 희	Philadelphia
사업총괄 부회장	이 종 환	Harrisburg, PA
여성분과 위원장	김 윤 옥	Virginia
총무이사	김 익 주	Canada

감사

감 사	이 승 수	Philadelphia
감 사	임 광 익	Colorado

스 폰 서

MILLER BREWING COMPANY

ANHEUSER BUSH INC

COORS BREWING CO

COCA COLA USA, INC

PEPSICO

*Appreciates the support of its
advertisers and encourage you to
patronize them*

ahh thentic

*No artificial flavors,
no added preservatives.
Since 1886.*

open happiness*



Budweiser

완벽한 조화.
깊고 순수한 맛.

